

# 광주도 통합진보당원 집단 탈당 조짐

## 임택 전 광주시당위원장 탈당... 참여계 잇따를 듯

이석기·김재연 의원에 대한 제명안 부결로 통합진보당 당원들의 대규모 탈당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광주에서도 탈당 움직임이 본격화되는 등 최악의 내홍을 겪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신당권과의 3주제 가운데 구(舊) 민주노동당 인천연합과 진보신당 탈당파가 수일 내에 각각 자체 회동을 갖고 향후 거취에 대해 결정할 계획이어서 통합진보당 사태가 좀더 기로를 맞고 있다.

임택 통합진보당 전 광주시당 공동 위원장은 지난 31일 "비례대표 경선 부정사태 이후 당의 혁신과 대중적 진보정당에 대한 희망을 갖고 버려왔는데 이전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임 전 위원장은 국민참여당 출신으

로 당내 비당권파로 분류된다. 통합진보당 광주시당 진성 당원(당비를 납부하는 당원)은 3500여명으로, 이 가운데 참여계는 10% 가량인 350여명으로 추산된다.

이날 임 전 위원장의 탈당으로 광주에서도 참여계 당원들의 탈당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통합진보당 관계자는 "광주는 구 당권파와 갈세를 보이는 지역이어서 대규모 탈당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참여 계의 탈당을 시작으로, 비당권파들의 탈당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탈당 사태가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신당권과의 강기갑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각 계파의 대표자와 조찬회동을 갖고 대책을 숙의했다. 이날 회동에는 참여계계의 유시민 전 대표, 진보

신당 탈당파의 심상정 전 대표와 노회찬 의원, 노동계의 조준호 전 대표가 참석했다. 이·김 의원의 제명안 이후 신당권과 수장들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강 대표는 이 자리에서 "계파별로 논의에 들어간다고 하니 통합진보당과 함께하든 하지 않든 주도적 위치에 있는 사람의 결단이 필요하다"며 "이 상태가 이어지면 당원에게 더 큰 혼란을 줄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대표는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통합진보당은 사망선고를 받은 정도가 아니라 사망선고가 집행된 것과 다르다"며 "공동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당원의 말을 들어봐야 하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가

지 못했다"고 밝혔다.

심 전 대표는 "국민이 통합진보당에 대한 기대를 저버렸다는 공감대가 있었다"며 "앞으로 관대들을 모으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 통합진보당의 운영은 앞으로 2~3일 내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연합은 31일~8월1일 중에, 그리고 신당권과는 8월2일 정도에 자체 모임을 열고, 조직적인 탈당 여부를 포함한 행동 방향을 논의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이들 두 주체가 탈당 및 재창당 행보에 동참한다면 통합진보당은 빠른 속도로 와해될 것으로 보인다. 오는 13일로 예정돼있는 민주노동의 중앙집행위원회 결과 역시 핵심 변수다.

# 박람회 관람객 600만 돌파

## 연일 신기록 행진... 전남 '지자체의 날' 추가 운영

여수세계박람회 관람객이 연일 신기록을 경신하면서 목표 관람객 800만명을 향해 뒷심을 발휘하고 있다.

박람회 조직위원회는 지난 30일 오후 입장객 마감결과 27만5027명을 기록해 전남 27만2527명을 하루 만에 갈아 치우는 등 개장 이후 최대 인파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또 '여수시민의 날' 마지막날인 31일 오후 6시 현재 관람객 18만5255명이 입장해 지난 27일 누적관객 500만명 돌파 이어 4일 만에 600만명을 넘어서는 등 폐장 12일 남겨두고 막판 피치를 올리고 있다.

조직위는 휴가와 방학을 맞아 가족창당 행보에 동참한다면 통합진보당은 빠른 속도로 와해될 것으로 보인다. 오는 13일로 예정돼있는 민주노동의 중앙집행위원회 결과 역시 핵심 변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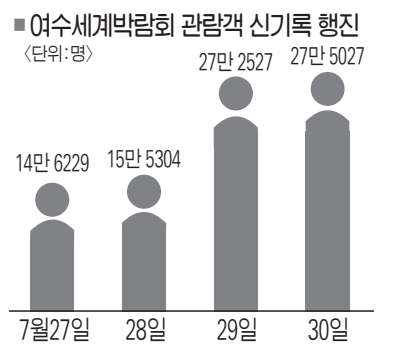
민들이 대거 입장한 데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지자체 방문의 날을 운영 방문객들로부터 호평이 이어지는 가운데 단체 관람객의 방문도 꾸준히 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7일에는 14만6229명, 28일엔 15만5304명이 각각 박람회장을 찾았고, 여수시민의 날 행사 첫 날인 29일 27만2527명, 30일 27만5027명, 31일 오후 6시 현재 18만5255명으로 거의 매일 신기록을 갈아 치우고 있다.

조직위 관계자는 목표 관람객 수인 800만 명에 근접할 수도 있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편 조직위는 전남도의 요청으로 1



일부터 전남지역 도민을 대상으로 '지자체 방문의 날'을 추가로 운영하기로 했다. 1~3일엔 구례·보성·고흥·광안·장성, 5~7일 영암·해남·순천·화순·나주·무안·곡성·함평·완도·진도, 8~10일에는 목포·담양·강진·영광·신안·장흥 주민들에게 3000원의 입장권으로 특별관람 기회를 제공한다.

/동부취재본부=임문택기자 mtlim@



여수세계박람회 관람객이 연일 신기록을 경신하면서 지난 31일 600만명을 돌파하는 등 폐막을 12일 남겨두고 막판 피치를 올리고 있다.

# 日 올 방위백서에도 '독도는 일본땅'

## 8년째 되풀이... 정부 "엄중 항의"

일본이 올해 방위백서에서 독도가 일본땅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엄중한 항의 입장을 밝혔다.

일본 정부는 지난 31일 오전 내각회의를 열고 2012년 판 방위백서를 의결한 뒤 공식 발표했다.

일본은 방위백서의 본문 내용 첫 페이지에 해당하는 '우리나라 주변 의 안전보장 환경'에서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인 북방영토(쿠릴열도의 일본명) 및 다케시마(竹島: 독도의 일본 명칭)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인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고 기술, 독도가 자국 영토임을 분명히 했다.

일본 정부는 자민당 정권 당시인 2005년 방위백서에서 독도를 일본의 고유영토로 규정한 이후 8년째 같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방위성은 일본의 주권이 미치는 영토를 다른 지도에서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독도를 '다케시마(竹島)'로 표기했다.

일본 정부가 자국 언론은 물론 외국 언론을 대상으로 한 보도자료의 주요 내용에 독도 영유권 주장을 명시한 것은 방위백서 본문에서의 영

유권 주장에서 더 나아가 독도가 자국 땅임을 국제사회에 인식시키고 이를 기정사실화 하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일본이 교과서에서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고, 외교청서에 이어 방위백서에서도 독도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함으로써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주요 쟁인 한일 외교관계가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조대영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일본의 2012년도 방위백서에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히 우리 고유 영토인 독도를 일본 영토로 주장하는 내용이 포함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면서 즉각 시정을 촉구했다.

박준용 외교부 동북아국장은 이날 쿠라이 타카시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 공사를 초치해 유감을 표명하고 우리 정부의 엄중 항의 입장을 담은 구상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 '술대신 공연' 中企 문화접대 늘어

## 올부터 1%이상 세제혜택

술자리 대신 공연장이나 스포츠 경기장에서 거래처 임직원을 접대하는 '문화접대'가 중소기업들 사이에서 늘어나고 있다.

지난 31일 중소기업중앙회가 국내 중소기업 300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 업체들의 총 접대비 중 문화접대비의 비율은 2009년 0.92%에서 지난해 1.36%로 0.44%포인트 증가했다.

업체당 평균 문화접대비 지출

액도 2009년 280만원, 2010년 490만원, 2011년 530만원으로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지출 계획도 '지난해보다 문화접대비를 늘리겠다'고 응답한 기업이 27.0%로 '줄이겠다'(2.0%)고 밝힌 기업보다 많았다.

중앙회는 지난해까지 문화접대비가 총 접대비의 3%를 넘겨야만 세법상 혜택을 볼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 이 기준이 1% 이상으로 완화되면서 업체들 사이에 문화접대 풍토가 퍼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 금강산관광 재개조건 北, 사실상 거부

북한은 31일 '신변안전 보장시 금강산 관광 재개 가능'이란 취지의 류우의 통일부 장관의 최근 발언에 대해 "금강산 관광사업을 완전 결판낸 책임을 모면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류 장관은 지난 25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출석, 금강산 관광 재개와 관련해 "(관광객의) 신변 안전이 핵심이고 나머지는 부수적인 것"이라며 기존 입장보다 유연한 태도를 보인 바 있다.

북한 대남선전용 웹사이트인 '우리 민족끼리'는 이날 '신변안전 타령, 역시 대결부 장관'이라는 논평에서 현 정부가 집권 초부터 '피주기' 등을 거론하고 관광객 피격사망 사건을 계기로 관광을 일방적으로 중단시켰다며 "책임은 전적으로 남조선 보수당국에 있다"고 주장했다.

신변안전 보장 요구에 대해서는 "현대그룹 회장의 평양 방문 기회에 최고 수준에서 담보해준 문제"라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 오늘 '한국의 날' 행사 다채

5일까지 한국주간

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는 1일 '한국의 날'과 '한국주간'(1~5일)을 맞아 다채로운 기념행사와 공연을 펼친다.

한국주간에는 국립국악원의 '태평서곡', '종묘제례악'을 비롯해 국립창극단의 '수궁가', 국립무용단의 '코리아 판타지 in 여수', 중요무형문화재 제72호인 '진도씻김굿' 등 평소 접하기 어려운 전통문화 공연들이 펼쳐진다.

1일에는 박람회장 내 해양경찰청 교육선인 '바다로'호에서 '동북아 마

리나 사업 발전을 위한 한·중·일의 비전과 역할 모색' 주제로 제1회 동북아 마라나 포럼도 열린다.

같은 날 주제관 앞바다에서는 '제1회 국토해양부장관배 한·중·일 국제 요트대회'도 개최된다.

국가의 날은 박람회에 참가한 나라가 하루를 정해 자국의 날로 선포하고 자국의 고유한 향기가 느껴지는 공연과 각종 행사를 개최한다. 지난 5월 12일 개막 이후 현재까지 104개 참가국 중 86개국이 국가의 날을 개최했다.

**오늘의 여수엑스포**

해양문화체험 '해피야'가 EBS의 애니메이션 '우당탕탕 아이쿠'의 캐릭터들과 함께 뮤지컬 '신나는 바다놀이터'를 공연한다.

△국가의 날-한국 (엑스포홀·오전 10시)  
△팝페스티벌-SBS K-POP 슈퍼콘서트(특설무대·오후 8시)  
△빅오쇼 (해상무대·밤 8시50분)

△어제의 관람객 수 = 18만 5255명(31일 오후 6시 현재)  
△누적관람객 수 = 600만 8393명

더 큰 세상, 깊은 감동의 서비스

## 다와옥션 www.dawauction.co.kr

**다와옥션 부동산 경매학원**

호남유일의 정통 경매학원!  
불만족시 수강료 전액환불!

실적기본반 : 매주 수요일  
오전 : 10시 30분/오후 : 저녁7시 (3개월 16주 과정 25만원)  
강사 : 이 정석 교수(저자직강)

**목요일특강 : 매주 목요일**  
오후 : 7시(교육참가시 확인요망)  
(교재비포함 수강료는 1-2만원)

과목 : 세무,민법,부동산정책,기타  
기본경매의 보수교육

◎수시모집중(기수별 선착순 80명)  
◎국내유명강사 초청 특강(강좌외)

☎ 문의 062-352-8589 (010-8004-6767) ☎ 문의 010-4911-4989 (062-268-8949)

남구 월산동 돌고개역 1번 출구/ 신현은행 4층(구.전남경찰청 4거리)

## 금당 공인중개사 건물매도

- 양양시시설용 건물 동구 대지197 건평507 평인아전한 9억
- 양양시시설 용, 화순군 도곡 대지 302건 평 505평 4억7천
- 충정로 슈퍼, 대지 27 건평 30 공사기 1억9200 매도 1억7천
- 오지동 소형주택 3층 상가주택 대지 71 건평105평 3억4천
- 유동 로터리 대지 240 건평 818 대출 18억, 서옥, 양양시시설 협합반인전 2억
- 누문동 모텔 대지130 객실24 영업실적 6억7천
- 누문동 일고 부근 단층 상가주택 대지36 공사지가 1억2500 상가는 임대중이고 주택은 공실 1억9백
- 양동 식당과 관련 대출 2억 대지 80 건평 256평 3억2천

### 나대지

- 충장로5가 상업지역 104평 주택은 철거해야함 원문,생활주택조합 공사지가에 매도2억5600만원
- 장성군 삼계면 관백나무가 많은산 10900평 환자분들 양양시시설에 좋음, 매도 1억
- 공장부지 함평군 해보면 1725평 국도 접했음 2억8천
- 중흥동 상업지역 166평 3거리 코너 공사지가 4억7천 매도5억3천
- 공장부지 나주시 반남면 잠종지 5100 5억 4천
- 계림동 상업지역 155평 공사지가 6억 3300 매도5억
- 신안동 전남대 앞 4거리 대문면 상업지역 249평 생활주택형 오피스 스텔 직할 공사지가 9억천 매도 8억

### 시골주택 및 주택지

- 화순 남면 대지76 주택은 수리해야함 1500만원
- 담양군 보산면 주택지 157평 대출 4천 매도 4000만원
- 장성 서삼면 금계리 대지 326평 건평 47 교환가능 1억3천
- 보성군 대원사 입구 광주에서 25여분 거리 경관좋은 5550평 경당 17만원 (8600만원)

222-4994, 010-2632-5659, 금남로5가 광주고용센터 옆

## 수원지구 상가임대 분양

1층~7층 (20평~210평) 분할가능! 즉시입주! 시비없음! 학원/병원 한의원/독서실 편의점/약국

### 분양임대시 특별할인중 교환,매매전문

상가 3억~100억까지 교환및 매매합니다. 토지/아파트/상가/기타

주:신현아이다 062)527-7602

## 역세권 상업지 토지급매

운천역 1분 코너

### 중심상업지 250평

최고위치!! 상가, 도시형 오피 적합 ★매가 상담후 결정★

### 원룸매매(신축)

전대, 조대 쌍촌동 수원지구 5억부터 12억까지

062)961-3377

## 매매교환 전문 빌딩, 모텔, 땅 상가 건물

### 매수 매도 대기중

■건축상담■

예산 부족으로 건축을 고민하고 계신 분! 부지를 가지고도 경매 없이 건축을 망설이고 계신 분! 호텔! 무인텔! 사무사! 빌딩! 주택! 상가건물! 건축비, 시공비 없어도 신축에서 준공, 분양까지!!! 이제 고민하지 마시고 땅을 사십시오. 신축 건물 신축 공사 가능합니다.

●지금 계속된 상담받고 있습니다●

■구 입■

함께 할 수 있는 성실하고 의지가 강한 당신을 기다립니다.

### 최기철공인중개사

광주시 광산구 수원동 965-201호 062)956-6660 010-2139-6255 FAX. 956-6608

## 최기철 공인중개사 사무소

광고물건(상가빌딩매매)

- \*사구 상수지구 상가빌딩 대지 180평 건평 873평
- \*사구 상수지구 상가빌딩 대지 501평 건평 1415평
- \*사구 상수지구 상가빌딩 대지 150평 건평 884평
- \*사구 화양동 코미나.이트타운 모텔 대지 99평 건평 344평 룠00실
- \*남구 진월동 상가빌딩 대지 620평 건평 2181평
- \*사구 상수동 전대경문 상가빌딩 대지 156평 건평 600평
- \*북구 두암동 동2대후문 원룸 대지71평 건평 98평 방15실
- \*광산구 우산동 상가빌딩,웨딩홀 대지 1741평 건평 94000평
- \*광산구 신항동 보전대 부근 대지 630평 건평 460평
- \*나주시 남평동 상가빌딩 대지 119평 건평 210평

광고물건 (토지매매)

- \*상수지구 차평동 대지 1000평
- \*사구 서창동 대지 948평
- \*북구 두암동 대지 500평
- \*나주 왕곡면 옥곡리 대지 1,900평 대지1010평
- \*광산구 수원동 대지 10,737평
- \*나주 금천면 원곡리 대지 3,200평
- \*나주 왕곡면 옥곡리 대지 1,900평

### 최상의 전원주택 적합 부지 매매

- \*무안군 해제면 참마리 지도방향 바닷가부근 대지 2,340평
- \*장성군 남면 행정리 대지 500평
- \*광안동 덕여리 대지 2,800평

956-6660-010-2139-6255

## 랜드피아 공인중개사 상가 임대

각동동 홀플러스인근 병의원, 사무실 적합

- \* 4~5층 각 130평
- \* 6층 110평
- 보5천 / 월200만
- \* 지하 140평 (임대가 및 조건조정가)

### 수익성 부동산매매

랜드피아오피스텔 매매

- \* 15평~29평
- 9~12% 높은수익률

치평동 근린상가 매매

- \* 매가29억~100억대
- 물건다량 보유
- 8%~10% 수익률

010-9731-8949 (치평동랜드피아 O/P 1층)

## 대인동상임부동산

좋은 자리에 상가 건물을 싸게 사실분

상가 전문소개업체인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광주 시내 전지역 상가중 점포가 잘 형성되어 월세가 다 른지역보다 더 많이 나오고 앞으로 더욱 좋아질 비전인 는 곳으로 1층 점포가 4~5 칸 정도에 점포가 여러칸인 상가를 대표적인것만 골라 물건을 많이 확보하고 있어 일일이 광고하지 못합니다. 시장님께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실 때에는 상가전문 소 개업체인광주에서 오랜전통 있는 저희 부동산에 꼭 한번 방문 하시면 책임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FAX)223-1772 현 011-602-2532 (광주은행 신복동 대인동 상임부동산)